

미래를 선도하는 주거전문가를
양성하는 창의적인 융합 인재의 산실

주거환경학과

Department of Housing & Interior Design



http://che.khu.ac.kr/?page_id=225

<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8p1nZ740zKM>





건강하고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

주택은 사는 곳 (place)인지, 사는 것 (commodity)인지에 관한 이슈는 오늘날 가장 핫한 주거 현안입니다. 모두가 안락하고 건강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인 주택을 만들 수 있는 전문가로 성장하는 곳이 주거환경학과입니다. 단순히 주택이라는 구조물과 제반 요소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공간에서 삶을 가꾸는 인간, 인간-주택 간의 일상생활 행위에 영향을 주는 미시적 및 거시적 환경까지 종합적으로 학습하여 통합적인 사고와 창의력을 갖추고,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함양하여 글로벌 역량을 갖춘 주거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학과 목표입니다.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「LINC+ 사회맞춤성장형 산학협력력 교육과정」에 참여해 오고 있으며, ‘주거관리 산학협력트랙’과 ‘주거디자인 산학협력트랙’의 두 심화 과정을 운영하고 캡스톤디자인, 현장실습 등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특히, 글로벌 인재상을 지향하여 학과 내 「Property & Facility Management (PM & FM) Track」은 2016년 국내 최초로 그리고 아시아 대학 중 세번째로 국제시설경영관리협회 (International Facility Management Association, IFMA)의 국제 인증을 획득하여 국제적인 FM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특화·운영해 오고 있습니다. 아울러 주거환경학과에서는 「BK21 Four 혁신인재 양성 교육과정」에도 참여 중이며 고령서비스-테크 융합전공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형 혁신인재를 육성 중입니다.

융·복합적인 교육과정

주거환경학과 교육과정의 기본구조는 우선 전공기초 4학점, 전공 필수 21학점을 포함하여 전공학점 총 64학점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. ‘주거관리 산학협력트랙’에서는 ‘주택정책론’, ‘주택시장분석’, ‘주거자산관리’, ‘주택금융 및 개발’, ‘주거시설관리실무’, ‘주거환경 시스템’, ‘주택통계학’, ‘주거환경연구법’ 등의 과목을 통해 주거자산 관리 및 평가, 주거시설경영관리, 주거복지 및 제도 등을 심화 학습합니다. ‘주거디자인 산학협력트랙’에서는 ‘가구 및 실내코디네이

특화된 국제교류 프로그램 및 차별화된 교과활동

션, '공동주거 디자인', '특수주거디자인', 'BIM 기반설계', '브랜딩과 디자인전략' 등의 과목이 있으며, 디자인 분야를 더 집중하여 학습합니다.

이처럼 주거환경학과는 인문, 사회, 과학, 디자인 분야가 결합된 융합적이고 복합적인 학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, 세부적으로 학생의 적성에 맞추어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.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통합적 사고의 융합 교육으로 구성된 주거환경학과는 미래지향적인 학과입니다.

주거환경학과는 글로벌 역량을 키우고자 해외 우수 대학과 협력하여 해외 단기 전공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- 미국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의 「Facility Management Intensive Program」(통합 시설경영관리 프로그램), 미국 Kent State Univ.의 「Fabrication & Process of Making Program」, 말레이시아 Univ. of Malaya의 주거디자인 프로그램, 중국 Univ. of Hong Kong의 「International Residential Property Development & Management Program」(주거자산관리 프로그램), 네덜란드 Univ. of Amsterdam의 「Urban Studies: International Housing, Policy & Planning Program」(주택정책 및 도시계획 프로그램) 등을 파견해 오고 있습니다.

매년 졸업작품전시회와 졸업논문발표회를 개최하며, 매학기 전공 답사와 과제전시회를 진행하고, 재학생들의 취업과 진로 준비를 위한 학생 자치 동아리들이 운영 중입니다 - 실내디자인 분야 공모전을 준비하는 모임인 Spatialist, 주거자산관리 분야의 국가전문자격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준비하는 ProHI,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집수리 활동을 하는 주거봉사단이 활동 중입니다.

주거환경학과의 진로

주거환경학과는 총체적인 학문을 다루고 배우기 때문에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다양하고 폭넓습니다. 우선 주거환경학과와 관련된 자격증으로 주거복지사, 주택관리사, 공인중개사, 감정평가사, 시설경영관리사, 실내디자이너, 실내건축기사, 건축기사 등 다양하며, 전공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여 공기업 (예, 한국토지주택공사(LH), 서울주택도시공사(SH) 등) 뿐만 아니라 국내외 우수 기업 등에서 근무할 수 있고 공무원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주택관리사, 주거자산관리 전문가, 주거시설경영관리 전문가, 주거복지사로도 일할 수 있습니다.

재학 중 각종 공모전에 참가하고 실내디자인 및 주택계획 포트폴리오를 제작하여 실내디자이너, 실내코디네이터, 주택상품개발자, 스마트홈 전문가, 가구디자이너, 리모델링 전문가 등으로 진출할 수 있으며, 건축설계사무소,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, 가구 및 실내코디네이션 회사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. 주거환경 분야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이 높고,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싶다면 대학원에 진학하여 더 깊은 공부를 하여 공공 및 민간 분야의 연구소의 연구원, 국내외 대학의 대학교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.



실내건축학과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?

주거환경학과를 접하면 흔히 실내건축학과와 비슷한 학과로 혼동합니다. 두 학과의 차이점은 융·복합적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주거환경학과와 달리 실내건축학과는 물리적 공간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한다는 점입니다. 주거환경학과는 물리적 공간으로서 주택 이외에 공간 이용자인 거주자, 사회 문화 및 제도, 운영 및 관리 등 인문학적 소양, 사회과학적 접근, 미학적 사고를 종합적으로 학습하여 인간과 조화로운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실현하고자 합니다.